

영어어문교육 10권 2호 2004년 여름

## 한국 · 중국 · 일본의 대학입학 영어시험 문항 비교 연구<sup>1)</sup>

전 병 만  
(전북대학교)

Jeon, Byoung-Man. (2004). A comparative study of English test items of college entrance examinations in Korea, China, and Japa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0(2), 113-132.

This study aims to suggest desirable directions through analyzing English test items of college entrance examinations(CEE) in Korea, China, and Japan. To achieve this, English test items of Scholastic Ability Test(SAT) in Korea were compared with those of CEE in China and Japan, and test items of TOEFL and IELTS.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not many items for testing productive skills relatively to the tests of other countries including TOEFL and IELTS. Especially, there were integrated items for writing test in China. In case of speaking test, all the other country adopted direct ways like interview and oral test, not indirect test as in the SAT in Korea. It is suggested that there need to be included test items comprising long passages in order to measure extensive reading ability. It can be suggested that cloze test be adopted for testing integrated proficiency of English.

[progressive reading/slashing/sense group, 앞에서부터 읽기/줄어 읽기/의미단위]

---

1) 이 연구는 2003학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조성 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평가는 학습자가 교수학습 과정을 거쳐 도착해야 할 지점, 즉 교수학습 목표에 따른 성취 기준이 선행된 개념이다. 고등학교 영어과 교수학습 목표의 근거는 교육 인적자원부가 고시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찾을 수 있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의도한 성취 목표의 도달 여부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공식적인 최종 평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이루어진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Hughes (1989)가 제시하고 있는 역류효과(washback effect)가 지나치게 커서 그것의 유형과 내용에 따라 고등학교 영어교육 전반에 걸쳐 그 함방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대학입학시험의 역류효과를 감안해 볼 때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바람직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 개발을 위해 이 연구는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외국어(영어)시험 문항의 문제점을 한국 주변국 즉, 중국과 일본의 대입관련 영어시험 문항과 표준화 시험의 대표적인 예로, 미국이나 영국에서 외국인에게 요구하는 대입자격요건으로서 TOEFL과 IELTS의 문항과 비교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각 시험의 문항에 대한 기능별 분포와 문항 유형을 한국의 대학수학능력 영어시험과 비교 분석하여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탐색한다. 이 연구는 중국의 2002년 보통고등학교초생 전국통일고시 영어시험 문항, 일본의 대학입시센터 2002년 영어시험 문항, CBT TOEFL sample, 영국문화원 IELTS 자료, 한국의 2003년 대학수학능력 시험 외국어(영어)영역의 문항 등을 비교 및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 II. 일본, 중국, 한국의 대학 입학관련 영어시험

지역 및 문화적으로 유사한 일본과 중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입관련 영어시험과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내용을 비교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일본의 대학입학과 관련된 시험은 STEP(society for testing English proficiency)으로 대학입학센터에서 관리하는 영어영역의 시험이다. 반면에, 중국에서 실시되는 대입관련 영어시험은 CET(college English test)이다. STEP과 중국의 CET는 직접적인 인터뷰를 통해 실시되고 있다.

일본의 대입관련 시험은 한국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유사한 대학입시센터에서 주관하는 것과, 대학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각 대학은 대학입시센터의 시험결과를 통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의 기초적인 학력을 폭넓게 파악하고, 특정

교과의 성적으로 대학 정원의 일부를 선발한다. 영어시험 문항은 단어 강세, 억양, 문맥에 맞는 단어 채우기, 대화에 맞는 문장 고르기, 문장 완성하기, 담화구조를 묻는 독해, 문장 배열하기, 장문 독해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만점은 200점이며, 독해 문항에 많은 배점이 주어진다.

중국의 대입관련 시험인 통합고사는 총150점 만점에 선택형 95점, 비 선택형 55점으로 120분의 시간이 주어진다.

표 1  
한국, 일본, 중국의 대학입시 영어시험 비교

구분	일본	중국	한국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EP 주관으로 1997년부터 의사소통능력 강조</li> <li>· 실생활에 필요한 영어능력을 중요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부가 주관하며 개방 정책으로 1988년부터 영어 구어평가를 추가</li> <li>· 상대평가에 절대평가의 성격을 절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에서 수학하는데 필요한 영어사용 능력을 평가</li> <li>·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영어교육 목표의 달성 정도 확인을 평가목표로 함</li> </ul>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졸, 대학중급, 고졸, 고교중급, 중졸, 중학교 중급, 중학교 초급 5등급으로 구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수준이 있으며, 6수준 평가가 최고 수준, 4~6수준 평가는 표준화 시험, 1~4수준은 학교의 자기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1학년도까지 개인 원점수 제시</li> <li>· 2002학년도부터 등급(9등급)과 백분위 점수로 표시</li> </ul>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읽기, 쓰기, 듣기</li> <li>· 2단계: 영어구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수준: 청해, 독해, 어휘/구조, 빈칸 채우기, 작문, 독해에서 짧은 답의 주관식 평가</li> <li>· 6수준: 4수준에 있는 빈칸 채우기가 없으며, 요소별 평가시간과 수준이 다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어 의사소통능력 중심</li> <li>· 쓰기와 말하기와 같은 표현 기능은 간접적으로 평가</li> <li>· 영어사용능력, 유창성, 청해 및 독해전략 강조</li> <li>· 영어교육의 정상화 강조</li> </ul>

선택형의 경우 빈칸에 주어진 단어를 선택하는 것, 빈칸 채우기, 독해 문항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중에서 독해의 비중이 가장 커서 선택형 점수 95점 중 70점을 차지한다. 비 선택형은 주로 빈곳에 주어진 단어를 채우기, 단문의 잘못된 곳 고치기,

영작문 등으로 구성된다. 비 선택형의 경우 작문의 비중이 크고 55점 중 30점이 배정된다.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영어 용법에 관한 지식의 측정이라기보다는 영어를 듣고, 읽고, 말하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유창한가를 측정하는 유창성 평가에 중점을 시험이다. 특히, 영어 사용의 유창성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는 어휘력, 문법성 판단력,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종합적 이해 및 적용에 관련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 III. TOEFL과 IELTS

#### 1. CBT TOEFL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의 CBT TOEFL(Computer-Based Test: CBT)의 개괄적인 구성은 Listening, Structure, Reading, Writing의 네 영역으로 되어 있다. Listening과 Structure는 컴퓨터 환경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그래픽 유형들이 등장하고, 작문(Writing)이 포함되어 있다. CBT TOEFL의 특이한 점은, 무엇보다도, 각 응시자마다 다른 문제가 제시된다는 점이다. 비록 전체 Section 중 Listening과 Structure만 그렇게 구성되지만, 각 응시자의 수준에 맞춘 난이도의 문제를 컴퓨터가 자동으로 선택하여 제시하는 '컴퓨터 대응 테스트(Computer-Adaptive Test: CAT)'이다. CAT에서는 각각의 응시자들에게 같은 문항 수, 동일한 시간, 동일한 문제 유형으로 다양한 내용의 문제가 주어진다는 점은 같지만, 각 문제의 난이도는 각각 다르다. 즉 CAT는 각 응시자의 수준에 적합한 문제를 자동으로 분석 선택하여 제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Section 별 구성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Listening

이 Section은 북미에서 쓰이는 구어 영어의 청해 능력을 측정하는 부분이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글들이 주어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대화(dialog), 짧은 담화(short conversation), 학술 토론(academic discussion), 소강의(mini lecture) 등이 있다. 이에 대한 질문 유형으로는 대의 파악, 세부 내용 파악, 추론 등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주어진다. 문제 형태상으로는 다음의 4가지의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 ① 4지선다형 객관식

- ② 하나의 화상, 또는 화상의 일부를 선택하는 유형
- ③ 4지 선다형으로 2개의 정답을 고르는 유형
- ④ 사물이나 문장을 관련짓거나 순서를 맞추는 유형

Listening의 총 문항 수는 30~50개이며, 문제 풀이 시간은 약 40~60분 정도이다. 유형별 문제 구성비를 보면, 각각 하나의 객관식 문제가 주어지는 dialog가 11~17개, 각각 2~3문제가 주어지는 short conversation이 2~3개, 그리고 약 2분 30초 정도의 길이의 학술 토론이나 강의가 4~6개 제시되고, 각 지문 당 3~6개의 질문이 주어진다.

## 2) Structure

표준 영어에 대한 지식 정도를 측정하는 부분으로서, PBT의 Structure and Written Expression Section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유형의 문제가 출제된다. 한 유형은 4개의 보기 중 가장 알맞은 하나를 선택하여 불완전한 문장을 완성하는 형태이고, 다른 한 유형은 밑줄친 보기 4개 중에서 틀린 부분을 골라내는 형태이다. 하지만 PBT처럼 하나의 유형이 끝난 후 다음 유형의 문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유형의 문제가 구분 없이 혼합되어 출제된다. 총 문항 수는 약 20~25개로 15~20분 내에 풀게 된다.

## 3) Reading

이 Section의 취지는 복미의 대학에서 접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룬 짧은 글에 대한 이해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질문 내용은 대의 파악, 추론, 기술된 정보 인식, 대명사가 지시하는 바, 어휘(의미, 동의어, 반의어) 등을 묻는 것으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 ① 4지 선다형 객관식
- ② 해당되는 단어, 구, 문장, 문단 등에 클릭하는 유형
- ③ 가장 적합한 곳에 문장을 덧붙여 넣는 질문 유형

Reading Section은 앞의 두 Section과 같은 컴퓨터 대응 방식이 아니므로, 질문에 답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고, 이미 풀었던 문제로 되돌아가서 다시 풀 수도 있다. Reading Section에서는 평균 250~350단어로 구성된 5개의 지문이 주어지고, 각 지문마다 10~14개의 질문이 주어진다. 따라서 총 44~60개의 문제들이 주어지며, 문제 풀이에는 70~90분이 소요된다.

## 4) Writing

기존의 TWE(Test of Written English)가 선택 사항이었으나 CBT TOEFL에서 writing은 필수이며 6점 만점으로 Structure 점수에 합산된다. 영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일반화하여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전개해 나가는 능력을 평가하는 부분이다. 더불어, 그 주제를 뒷받침할 근거나 예시도 제시해야 한다. 응시자가 직접 필기할 수도 있고 컴퓨터 상으로 입력해도 되는데, 30분 안에 작성해야 한다.

## 2. IELTS

IELTS 영어시험은 영연방 국가들의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려는 유학생들의 영어 능력 평가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국제공인 영어능력 평가시험으로, 독해(Reading), 작문(Writing), 듣기(Listening), 말하기(Speaking) 등의 4가지 영어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객관식 형태의 다른 많은 영어시험들과는 달리 주관식 형태의 IELTS 시험은 그 목적에 따라 유학생의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Academic Module과, 기업체 직원의 영어능력이나 영연방 국가로 이민 갈 때 필요한 이민자 영어능력을 평가하는 General Training Module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 1) Listening

Listening 시험은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 40문제가 출제되며, 소요 시간은 40분이다. 처음 두 부분은 일상생활에 관련된 것으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그 대화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풀게 된다. 예를 들면, 여행을 하는데 필요한 구비 서류나 아파트 시설에 관한 대화, 대학의 문화 시설에 관한 설명회, 회의가 열리는 기간 동안의 식사 준비 계획 등이다.

마지막 두 부분은 학교나 직업 교육을 하는 상황 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내용으로, 세 사람이나 네 사람의 대화를 들려주고 그 내용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면, 과제물에 대한 강사와 학생간의 대화, 연구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세 학생의 대화, 일반 학문적 관심사에 관한 강의나 토론 등이다. 주제는 모두 일반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으로, 응시자의 전공과는 무관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문항이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다. 문제 유형은 4지선다, 단답형, 문장의 빈칸 채우기, 메모, 요약, 그림, 도표, 차트 채우기, 그림을 순서대로 분류하기, 등급 분류, 연결하기 등으로 이루어지며, 문항의 지시사항은 명확하여 따라 하기 쉽고, 읽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Listening 시험 문항은 녹음된 테이프를 한번만 들려준다.

## 2) Academic Reading

Academic Reading은 60분이 소요되며 40문제가 출제된다. 독해 지문은 3개이며, 각각 1,500~2,000자 정도이다. 자료는 잡지, 저널, 책과 신문 등에서 발췌되며, 비전문 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대학교 과정에 진학하는 응시자들의 수준에 알맞고 재미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중 적어도 한 지문은 자세한 논리적 주장을 담고 있으며, 일부 지문은 그림이나 그래프 또는 설명이 있을 수 있다. 지문에 전문 용어가 들어 있을 경우에는 용어 설명이 부연된다. 문항이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다. 문항은 그 특성에 따라 독해 지문의 앞 또는 뒤에 나온다. 문제 유형은 4지선다, 단답형, 문장의 빈칸 채우기, 메모, 요약, 그림, 도표, 차트 채우기, 논리적으로 일치하는 문단 찾기, 저자의 견해, 자세, 주장 확인, 등급 분류, 연결하기 등으로 이루어진다.

## 3) General Training Reading

General Training Reading은 60분이 소요되며 40문제가 출제된다. 독해지문은 3개이며, 1,500~2,000자 정도이다. 자료는 기사문, 광고, 공식서류, 책자, 신문, 카탈로그, 안내 전단, 시간표, 책과 잡지에서 발췌된다. 첫째, 문항 부문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주제에 관련되어 있으며, 영어의 기본적인 언어학적 지식을 가지고 주로 일반적이고 사실적 정보를 이해하고 전달하는 과제가 있다. 둘째, 문항은 예를 들어 학습과정 자체나 복지시설을 이용 할 때 필요한 것 등 학습 생활에 필요한 것에 초점을 둔다. 이 부문은 자세하고 복잡한 영어로 이루어진 내용을 포함한다. 셋째, 본문은 일반적인 읽기로 더욱 복잡하고 긴 내용의 산문이지만, 응시자에게 익숙한 폭넓고 일반적인 내용에서 논쟁적인 내용보다는 묘사적, 서술적이고 지시적인 데에 중점을 둔다. 질문은 본문을 읽기 전에, 또 일부는 후에 제시될 수도 있다. 질문은 4지선다, 단답식 문제, 문장 완성하기, 메모, 요약, 그림, 도표, 차트 등의 완성하기, 논리적으로 일치하는 문장 찾기, 저자의 견해, 자세, 주장 확인하기, 구분 및 분류하기, 연결하기 등의 유형의 형태로 되어 있다. 문장의 지시사항은 명확하고, 익숙하지 않은 질문 형태는 예가 주어진다.

## 4) Academic Writing

Academic Writing은 60분이 소요되며, 두 문제가 주어진다. 첫 문항은 최소 150자 이상의 작문으로 그리고 둘째 문항은 최소 250자 이상의 작문으로 구성되며 소

요시간은 60분 정도가 배분된다. 전문적인 지식이 기대되는 것은 아니고, 각각의 문항이 개별적으로 평가되나 두 번째 문항의 비중이 더 높게 적용된다. 첫째 문항은 그림이나 도표를 보고 이에 따라서 응시자가 작문을 하는 것이다. 문체 유형이나 지시에 따라 응시자는 다음과 같은 능력이 평가된다.

- ① 데이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
- ② 절차나 과정의 전개를 표현하는 능력
- ③ 일의 전개과정을 설명하는 능력

둘째 문항은 응시자의 견해, 주장, 문제 해결에 관한 것으로 응시자의 다음과 같은 능력이 평가된다.

- ① 문제 해결 능력
- ② 논리적 주장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능력
- ③ 증거, 의견, 암시 등을 비교, 대조하는 능력
- ④ 의견, 증명, 생각을 검토, 주장하는 능력

작문 주제는 일반 관심사의 범주에 속하고, 전공에 관계없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항이다. 대학이나 대학원을 진학하는 학생 수준에 맞는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주제이다. 응시자는 작문하면서 논조, 문장 구조, 문체, 내용을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올바른 답은 짧은 에세이나 일반 리포트 형식이 된다. 전문 지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각 문항은 개별적으로 평가된다. 둘째 문항의 득점 비중이 첫째 문항보다 높다.

##### 5) General Training Writing

Academic Writing과 마찬가지로 60분 안에 두 가지 작문을 해야 한다. 첫 문항은 주어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편지를 쓰는 과제로서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상황 설명을 잘 해야 한다. 그 평가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 ① 개인의 의사교환 능력
- ② 사실상의 주어진 자료를 잘 끌어내어 표현하는 능력
- ③ 요구 사항과 싫고 좋음을 분명히 표현하는 능력
- ④ 견해(관점, 불편 사항 등)를 표현하는 능력

첫 문항의 적절한 답안은 개인적 서신 교환과 짧은 에세이나 일반적 리포트의 직성으로 이루어진다. 둘째 문항은 본인의 관점 또는 논쟁의 근거, 문제를 표현하는 과제이다. 다음의 능력을 평가하는 목적이다.

- ① 일반적, 사실상의 정보 제공
- ② 문제를 약술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



- ③ 견해, 평가, 가설 등을 정당화하고 표현하는 능력
- ④ 아이디어, 증거, 논쟁 근거 등을 평가하고 표현하는 능력

문항의 주제는 일반적인 것을 다루므로 응시자들의 전공 영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주로 여행, 숙소, 시사, 상업과 서비스, 건강과 복지, 직업과 관련된 보건 및 안전, 레크리에이션, 사회 및 물리적 환경 등이다. 작문 논조, 문장 구조, 수사법, 문체 내용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 6) Speaking

Speaking Test는 Academic Module과 General Module이 동일하다. Speaking Test는 약 10~15분간 소요되며 시험관과 응시자간의 일대일 인터뷰로 진행된다. 모든 인터뷰 내용은 녹음이 된다. Speaking Test의 구성은 다음의 세 단계로 되어 있다.

### Part 1. Introduction and Interview(4~5분)

시험관은 응시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서로 간단한 자기소개를 한다. 응시자가 편안한 분위기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가정, 관심사 등 익숙한 주제에 대한 간단한 대화가 진행된다.

### Part 2. Individual Long Turn (3~4분)

시험관은 응시자에게 특정한 주제가 있는 카드를 주고 응시자는 질문에 대답하기 전 1분간의 준비 시간이 주어진다. 응시자는 특정 주제에 대하여 1~2분 정도 이야기를 진행해야 하며 응시자의 이야기가 끝난 후 시험관은 1~2개 정도의 필요한 질문을 한다.

### Part 3. Two-Way discussion(4~5분)

시험관과 응시자는 Part 2의 주제와 관련하여 좀 더 추상적인 내용을 토론 형식으로 진행해 나간다.

## 7) IELTS 등급

시험은 9점 만점이며 각 테스트 영역별 점수와 평균 점수가 기록되어 전반적인 능력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대학들은 대체적으로 평점 6.0~6.5를 입학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 시험에서 성적은 각 영역별로 1점에서 9.0까지 주어지게 되며 전체 평점으로 표시된다. 등급별 수준은 다음과 같다.

- ① 9(Expert User) : 영어를 완전히 이해하고 동시에 적절하면서도 정확하게, 또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실력의 소지자들이 받게 되는 최고의 점수이다.
- ② 8(Very Good User) : 익숙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도 가끔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복잡하고 세부적인 토론을 잘 이끌어 나가면서 논리적 주장을 잘 나타내는 이들이 받게 되는 점수이다.
- ③ 7(Good User) :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언어 사용과 일부 상황에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리도 언어구사능력이 있다고 여겨질 경우 받게 되는 점수다. 일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언어를 잘 구사하며 자세한 내용 이해가 가능한 영어실력이다.
- ④ 6(Computer User) : 적절하지 못하고 정확하지도 않으며, 때로는 내용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종종 나타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효과적인 언어구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6점을 얻는다. 유창함이 다소 부족하지만, 특히 익숙한 상황에 대해서만은 상당히 복잡한 언어라도 이해를 잘하고 또 이를 구사할 수 있는 학생에게 주어지는 점수이다.
- ⑤ 5(Modest User) : 내용을 오해하거나 실수가 많고, 또 유창함이 부족해서 때로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내용이 이해가 가능하고 부분적인 언어 구사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로 자신이 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한 수준이다.
- ⑥ 4(Limited User) : 이 단계의 학생은 자기가 익숙한 몇 가지 상황에서만 언어 구사가 가능하고, 내용의 이해나 표현에 있어서 실수가 많다. 또 복잡하고 어려운 어휘를 사용하지 못한다.
- ⑦ 3(Extremely Limited User) : 아주 익숙하고 단순한 상황에서 의미의 전달 혹은 이해만이 가능한 경우에 받는 점수이고, 빈번히 의사 소통이 차단된다.
- ⑧ 2(Intermittent User) : 단어만을 사용해서 가장 기본적인 의사만을 전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읽는 영어와 쓰는 영어 모두 이해하기 어려운 영어 실력이다.
- ⑨ 1(Non User) : 사실상 언어구사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거나, 영어능력 평가에 도움이 될만한 어떠한 능력도 없는 상태이다.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서 평가할 수 없는 경우 0점 처리된다.

#### IV. 일본, 중국, TOEFL, IELTS 문항 비교

지금까지 II장과 III장에서 대학입학 및 외국인 대상의 영어능력 시험의 특징과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상술한 각 시험의 문항에 대한 기능별 분포와 문항 유형을 한국의 대학수학능력 영어시험과 비교 분석하여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탐색한다. 본 연구는 일본의 대학입시센터 2002년 영어시험 문항, 중국의 2002년 보통고등학교초생 전국통일고시 영어시험 문항, CBT TOEFL sample, 영국문화원 IELTS 자료, 한국의 2003년 대학수학능력 시험 외국어(영어)영역의 문항 등을 비교 및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 1. 언어 기능별 문항 분포 비교

본 연구에서 설정한 비교 기준은 내용영역과 행동영역으로 나누어 내용영역에는 크게 음성언어 기능과 문자언어 기능으로 구분하고 다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으로 나누었고, 음성·음운규칙은 말하기 기능에 포함시켰다. 행동영역에는 의사소통 능력과 언어 사고 능력으로 구분하였다. 각 시험의 언어 기능별 문항 분포는 표 2와 같다.

표 2  
언어 기능별 문항 분포

구분 기능	일본		중국		TOEFL		IELTS	한국
	선택형	비선택형	선택형	비선택형	선택형	비선택형	선택/비선택혼합	선택
듣 기			20		30-50		41	13
말하기	*9	구술시험		구술시험		TSE	구술시험	4
문법성			15		20-25			
읽 기	28		40		44-60		40	28
쓰 기	13			영작문		영작문	영작문	5
합 계	55		75					50

\*는 문자정보로 제시된 문항수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이해 기능 중심의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그러하다. 그러나 IELTS는 말하기와 쓰기의 직접적인 평가로 시험 결과가 실제 생활에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유사한 동양권으로서 중국은 선택형과 주관식의 두 종류의 평가도구로 영어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특히 쓰기의 비중이 비교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통일시험과 TOEFL은 문법을 묻는 section을 별도로 두고 많은 문항 수를 할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쓰기로 분류하여 2문항이 배정되어 있다. 일본은 구술시험을 따로 분류해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과 같은 형태의 녹음된 형태의 음성정보를 통한 듣기나 말하기 평가는 없다. 음성·음운 규칙을 묻는 과거 한국의 대학입학을 위한 학력고사 형태인 단어 강제와 억양 문항이 각각 2와 4개가 있다. 각 1개를 예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The smooth (a)surface of the (b)desert makes it possible for camels to transport goods easily.

① (a) surface (b) desert    ② (a) surface (b) desert

③ (a) surface (b) desert    ④ (a) surface (b) desert

※ Jim : What job do you eventually want to have?

Rie : (1)I haven't thought about it. Have you?

Jim : Yeah, I want a job that allows me to travel. <이하생략>

① haven't            ② thought③ about            ④ it

위의 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음성언어 기능을 문자정보로 제시한 것이 특이하다. 이와 같은 음성·음운 규칙의 문항과 더불어 비교된 자료인 일본의 대학입시센터의 평가 문항은 문자정보의 읽기 쓰기가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대학수학능력 시험은 비록 간접적인 말하기 평가이긴 하지만 음성정보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 이것은 TOEFL의 경우와 유사하다. 그러나 그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은 보완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 2. 대학입학시험 문항 내용 및 영역 분포 비교

일본, 중국, 한국의 대학입학관련 시험문항을 비교 분석하는 준거는 이제희(2001)의 것을 적용했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3개국 모두 이해 기능에 대한 비중이 높으며, 대화나 담화를 듣거나 읽은 내용을 이해했는가를 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음성정보나 대화 형태의 자료제시가 상대적으로 적고,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전의 학력고사나 본고사 형태의 단어 강제와 구 억양을 묻는 문항이 있다는 것은 특이할 만하다. 음성정보 제시에서 중국과 한국은 독백 형식의 담화보다는 대화 중심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읽기 자료에 사용된 지문 주제는 대체로 전문적이거나 학술적인 내용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내용이며, 한·중·일 모두 비교적 다양한 주제가 제시되었다. 통사규칙의 문항

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중국은 수험자로 하여금 통사규칙에 대한 지식을 실제 맥락에서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영어 지식 활용과 관련된 문항은 13개이며 다음과 같은 형태이다.

It is generally considered unwise to give a child _____ he or she wants.			
① however	② whatever	③ whichever	④ whenever

표 3  
대학입학관련 시험 문항 내용 및 영역 한·중·일 비교

내용영역	행동영역															
	의사소통능력						언어사고능력									
	문법적 능력			담화능력	화용적 능력	전략적 능력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종합적 이해							
	어휘규칙	음운규칙	통사규칙							일	중	한	일	중	한	일
음성 듣기	대화															
	담화															
언어 말하기	대화	*6					*1		3							
	담화				*3				1							
문자 읽기	인문								2		3		7		1	
	사회	1									3		20		11	
	과학								4		1		1		2	
	예술	1									1				3	
	문학								8						1	
문자 읽기	생물				1				2		3		5		2	
	환경	1	16			13						2				
쓰기	문단				1		1									
	문형수	1	6		16		24		2		2		3		1	
		1	6		16		24		2		2		3		1	
		16	15		10		8		45		32		1		3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 영역인 담화 능력, 화용 능력, 전략 능력에 대한 문항 개발은 3개국 모두 미흡하다. 이는 영어의 실제 사용면을 중시하는 사회언어적 능력을 다루지 못한다는 Bachman(1986)의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이외에도 중국의 통일고시는 선택형 문항이 75개, 오류수정형이 10개, 작문이 1개이며 총 150점 중 선택형이 115점 오류수정형 10점 작문 25점의 비율로 배점되어있으며 소요시간은 120분이다. 일본의 대학입시센터시험은 80분간 소요되며 200점 만점이다.

## 3. 언어기능별 문항 유형 비교

## 1) 듣기

듣기 평가는 직접적인 구술 평가와 간접적인 지필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국제적인 표준화 시험인 IELTS와 TOEFL은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을 골고루 평가하고 있다. 듣기 기능의 평가는 다른 기능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비중이 있다.

일본은 전혀 녹음된 음성정보 제시 형태의 듣기 평가 문항이 없으며, 한국과 중국은 전체 문항과 대비해 볼 때 비슷한 비율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통일고시는 그 문항의 형태가 단순히 특정정보를 파악하는데 그치고 있다. 오히려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이 다양한 유형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 표 4를 보면 알 수 있다.

IELTS는 문항 수 뿐 아니라 그 유형에 있어서도 정답의 우연성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로서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듣고서 이해한 내용을 가지고 또 다른 활동을 유도해 내는 상대적으로 높은 언어활동을 요구한다. 하나의 담화 또는 하나의 대화문 당 하나의 문항을 취하고 있는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과는 다르게 중국과 IELTS는 하나의 담화나 하나의 대화문 당 다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TOEFL 두 번째 부분은 하나의 대화문에 네 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이것은 청취와 이해 그리고 기억력에 대한 또 다른 학습자의 능력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  
듣기 평가 문항 유형의 국가별 비교

	일본	중국	TOEFL	IELTS	한국
특정정보파악/그림 고르기		20		5	9
대화/담화의 주제파악			20		2
그림 상황에 맞는 대화고르기					2
들은 내용으로 문장완성하기				22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 고르기			10	14	
합 계	0	20	30	41	13

IELTS는 듣고서 이해한 내용을 요약하는 고등 사고 능력을 요구하는 점이 중국과 한국의 듣기 문항 유형과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주관식 형태의 문항이 갖는 장점이다. 그래픽이나 그림으로 상황을 주고 그것과 어울리는 대화나 묘사문을 고르는 문항은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만 발견된다. 한국의 대학수

학능력시험과 비교할 때 IELTS와 TOEFL의 듣기 문항의 대화문이나 담화문의 길이가 길다.

대화문이나 담화문의 길이와 듣고 난 후 활동을 문항으로 구성한 주관식형 문항은 청해 이후의 학습자의 듣기 이외의 또 다른 능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 말하기

말하기 기능은 언어의 다른 세 기능과 비교해 볼 때 의사소통 능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말하기 평가는 평가의 실용성과 평가의 신뢰도 확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TOEFL의 말하기 시험인 TSE는 약 20분간 실시되는데 전체 문항이 녹음되어 있다. 유형은 녹음된 질문을 듣고 답하는 형태로 FSI 구술 시험과 같이 두 명의 채점자가 평가를 한다. 채점자는 영어교육 또는 언어학 전공의 전문가로 구성되고, 두 사람의 채점자 사이의 점수가 많은 차이를 보일 때 다른 사람이 증재하여 채점한다. 이 시험은 7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질문에 대답하거나, 주어진 문장을 큰소리로 읽게 하거나, 일련의 그림을 통하여 말을 하게 하거나, 그림을 보고 질문에 답하게 하는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7가지의 질문은 ① answer questions about themselves, ② read printed passages aloud, ③ complete partial sentences, ④ construct a story from a series of pictures, ⑤ answer questions about a single pictures, ⑥ answer questions on general topics, ⑦ give a short presentation as if they were speaking to a group of students로 진행된다.

표 5  
말하기 평가 문항 유형의 국가별 비교

	일본	중국	TOEFL/TSE	IELTS	한국
대화완성하기	*3	*1			3
담화상황이해 및 응답하기					1
합 계	*3	*1			4
구술	○	○	○	○	×

\* 문자정보로 제공됨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말하기 기능의 평가 문항은 중국과 일본의 말하기 평가는 구술 시험으로 따로 분리해서 실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우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말하기 평가와 같은 간접평가 유형이 3문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A : Could I have the tuna salad and a cup of coffee, please?

B : \_\_\_\_\_

A : No, that's it, thanks.

- ① Sure. Anything else?
- ② Yes. Is that all you want?
- ③ The tomato salad?
- ④ Would you like the coffee now?

비교 대상국의 직접적인 구술 시험과 비교하면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간접적인 평가로 응시자의 실제 음성언어를 직접 사용하는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극히 미약하거나 전혀 개발되지 못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말하기 평가에 대한 신뢰도와 실용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극복은 부분적이나마 현재 대학별 고사의 심층 면접을 통해 보완되고 있는 실정이다.

### 3) 읽기

외국어로서 영어능력 평가 문항 개발은 타 기능에 비해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읽기 평가 문항은 그 유형이나 지문에서 다루는 주제에서 모두 다양하다.

한국을 제외한 중국의 통일고시, 일본의 대학입시센터 시험, IELTS와 TOEFL의 문항은 지문의 길이가 길고, 하나의 지문에 다 문항 형태를 취하고 있다. 지문의 길이와 문항 수는 합리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즉, 100단어 이상의 지문에 단 한 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면 능률적인 평가라고 할 수 없다. 지문이 100-250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면 문항은 4-7개가 바람직하다(Harris, 1969). 이 경우 한 문항을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역량평가(competency test) 뿐만 아니라 속도평가(speeded test)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휘와 소재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지문의 길이도 다양화하여 진정성(authenticity)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중국, 일본의 평가는 지문의 길이와 문항의 수에 비교적 자유롭다는 것이 한국의 평가와 다르다. 즉, 지문의 길이에 거의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독해의 전 과정을 고루 평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독해 후 활동을 문항의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2003 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에 다시 비교적 긴 하나의 지문과 두 개의 발문으로 구성된 문항이 출제된 것은 바람직한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어휘의 수준도 한국의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약 1500 단어(공통영어 수준)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통일고시나 일본의 대학입시센터의 시험은 보다 탄력적이다.

또한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의 통일고시는 빈 칸 채우기 유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특이할 만하다. IELTS의 연결하기, 읽은 내용을 다시 재조직하는 활동 등은 독해가 또 다른 사고 과정을 위한 것이라는 본질적인 독해목적 을 충족시키는 바람직한 문항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학수학능력 시험 또한, 다른 시험과 비교해 볼 때, 문항의 유형을 다양하게 제시함으로써 정확 성보다는 유창성을 평가하려는 의도를 찾아볼 수 있다.

표 6  
읽기 평가 문항 유형의 국가별 비교

	일본	중국	TOEFL	IELTS	한국
빈 칸 채우기	2	20		8	6
연결하기				12	
글의 분위기/상황					2
필자/인물의 심정/어조					1
지칭대상추론		2	4		1
글의 목적/종류	1	2	2		1
주제/제목		2	3	3	5
요지		1	4		4
세부사항(일치)	12	9	17	10	4
문맥상 어구 의미		3	6		2
문단의 전후내용	3	1	4		1
재조직하기(표완성)				7	
합 계	18	40	40	40	27

#### 4) 쓰기

말하기 평가와 마찬가지로 쓰기 평가는 평가의 신뢰도와 실용도의 한계로 인해 쓰기 능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항 개발의 시도가 미흡하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말하기 평가처럼 쓰기 능력도 간접적이거나 단편적인 문법, 또는 문장/문단의 배열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CBT TOEFL의 TWE, IELTS의 Essay,

그리고 중국의 통일시험의 오류수정 문항이나, 100단어 내외의 실용문 쓰기 등은 한국의 대학수학능력 시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비록 한국의 쓰기 평가가 그 유형이나 다루는 주제가 다양하다고는 할 수 있으나 궁극적인 문자 표현 기능으로서 쓰기 평가 본질적 의미를 구현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부인할 수 없다.

표 7  
쓰기 평가 문항 유형의 국가별 비교

	일본	중국	TOEFL	IELTS	한국
문법성 판단			13		2
문장/문단의 순서	2				1
적절한 곳 문장/단어 넣기	16	13	7		1
무관한 문장 찾기					1
문단/대화문 요약					1
오류수정(주관식)		10			
합 계	18	23	20		6
영작문	×	○	○	○	×

반면에, 중국의 통일시험은 쓰기 평가에서 두 종류의 문항을 제시함으로써 오류 수정 문항은 정확성을 평가하고, 영작문에서는 유창성을 평가함으로써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정확성을 요구하는 문법 문항이 16개로 강조되고 있는데 그 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 Since my secretary didn't take the name of the visitor, I couldn't

\_\_\_\_\_

- ① see      ② be sure      ③ me      ④ who      ⑤ had come to

일본의 경우 문법을 강조한 문법 문항과 TOEFL의 두 번째 section인 Structure를 구성하고 있는 문항을 고려해 볼 때, 유창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정확한 정보의 해석이나, 정보 창출에 대한 능력을 소홀히 했다는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점 해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 IV. 결론

지금까지 비교 분석한 동양권의 대입관련 시험과 세계적인 TOEFL과 IELTS의 평가 문항의 장점을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에 적용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에서는 언어의 네 기능에 대한 평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표현 기능의 평가에 대한 결과는 미흡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국보다 평가의 실용도나 신뢰도에 더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통일고시는 적어도 쓰기 평가에서 전형적인 문항을 통해 영어능력을 평가하고 있음이 또한 밝혀졌다. 말하기 평가의 경우도 한국의 제외한 비교 대상국의 평가에서 구술 시험과 같은 직접 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물론 문제시된 표현 기능에 대한 평가는 현재 대학별로 실시되고 있는 심층면접이나 논술 시험에서 보완되고 있으나, 평가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성실한 이수를 알아보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때, 전국 단위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2003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새로운 유형으로 시도되었던 긴 일 지문 다 문항의 유형을 보다 발전시켜 다양한 독해 후 활동을 평가할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구술 시험에 관한 부분은 대학별 심층 면접에서 비교적 잘 활용되고 있는 듯 하나 이 또한 시간적 한계와 객관성 확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항 개발에 대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중국의 빈칸 채우기 문항에 대한 높은 비중에서 시사 받을 수 있는 것은 규칙빈칸채우기 문항은 전체적인 언어 숙달도를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수학능력 시험에 적용할 가치가 있다. 규칙빈칸채우기 시험의 변형된 예는 중국과 일본의 평가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바 그 실용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학입학과 관련된 평가가 그 어느 나라보다 관심이 높은 한국의 교육 풍토는 평가에 대한 개선 없이 영어과 교육과정의 정상화 및 올바른 영어교육을 보장받을 수 없다. 주변국의 대입 영어 평가 문항의 비교 분석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현재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실제 생활에 있어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는 것은 미흡하다.(전병만, 1994)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이에 대한 보완과 더불어 대학별 심층 면접이나 논술 시험도 과거의 평가 방법에서 벗어나 실제의 언어 상황이나 사회적 상황에 맞는 직접적인 평가로 전환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1). *한·중·일 대학 입시 제도 국제 비교 세미나*. 연구자료 ORM 2001-10.
- 한국 200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 시험지.
- 중국 2002년 보통고등학교초생전국통일고시 영어 시험지.
- 일본 2002년 대학입시센터 영어 시험지.
- 이재희. (2001).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의 총체적 개선 방안. *영어교육*, 56(2), 333-364.
- 전병만. (1985). *언어능력평가*. 서울: 한신문화사.
- \_\_\_\_\_. (1992). 언어능력 평가 이론에 입각한 TOEFL과 IELTS 시험의 분석. *어학 제19집*, 1-38. 전북대학교 어학연구소.
- \_\_\_\_\_. (1994). 대학입학시험에 있어서 영어시험의 바람직한 방향과 모형개발에 대한 연구. *영어영문학 제17집*, 1-20. 한국영어영문학회 전북지회.
- Bachman, L. F. (1986). The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as a measure of communicative competence. In C. W. Stansfield (Ed.), *Toward communicative competence testing: Proceedings of the 2nd TOEFL invitational conference* (pp. 69-88). Research Reports. ETS.
- Harris, David P. (1969). *Test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NY: McGraw-Hill.
- Hughes, Arthur. (1989). *Testing for Language Teach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Secondary

전병만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Tel: (063) 270-3210  
Email: bmjeon@moak.chonbuk.ac.kr

Revised in June, 2004

Reviewed in July, 2004

Revised version received in August, 2004